

교회 소식

유아, 유치부 (Discoveryland)

1. 자녀에게 꼭 이름표를 부착해 주십시오.
2. 부모님께서 오전 주일학교가 마치는 오전 11시 30분까지, 오후 주일학교가 마치는 오후 1시 30분 전까지 각 교실에서 자녀를 데리고 가신 후 안전을 책임져 주십시오.
3. **여름 성경학교(VBS) 일정** 8월 11일(월)~15일(금), 오전 9시 30분~오후 3시(만 4세이상 등록가능) 초기 등록: **오늘까지**(교인에게 먼저 혜택을 드립니다.)

초등부 (Promiseland)

1. 자녀들이 매일 Wonder Book 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2. **여름 성경학교(VBS)일정** 8월 11일(월)~15일(금),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초기 등록: **오늘까지**(교인에게 먼저 혜택을 드립니다.)

중·고등부(Timothy)

1. 7월 일정

- 4일(금): 모임 없습니다.
11일(금): Grace Retreat, Missions testimony and prayer - 오후 7시, 교회
18일(금): Activity(Ice skating) - 오후 7시, 교회
25일(금): Summer Olympics - 오후 7시, 교회

장년부

1. **새벽예배** 매주 화, 목(오전 5시 30분), 토요일(오전 6시)에 영상중계 됩니다.
모든 Smartphone (Iphone, Android Phone 등)과 모든 태블릿 (Ipad, Galaxy Tab 등)에서 함께 새벽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자 명단

1. **High School(고등학교)** Jennifer Yoo, Laura McCollough, Leah Choi, Lizzie Choung, Rachel Kim, Robert Owens
2. **College(대학교)** Elisa yi
3. **Graduate School(대학원)** Jennie Park Ou(Medical School), Stephanie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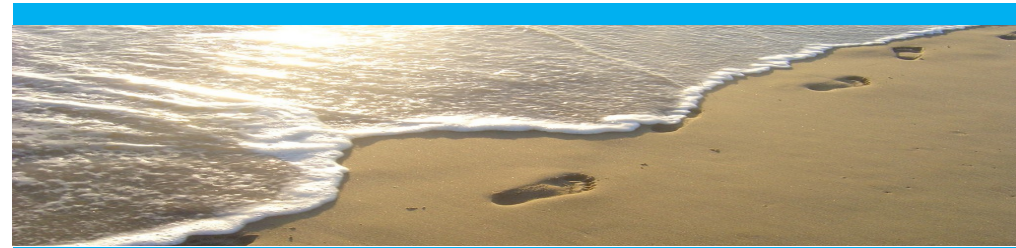
선교 일정

1. **Ecuador** 6월 28일(토) ~ 7월 5일(토)
2. **Navajo** 6월 28일(토) ~ 7월 5일(토)
3. **Work camp: Manassas, VA** 6월 29일(일) ~ 7월 4일(금)
기도 후원 부탁드립니다.

VA 오이코스 현황

목장	오이코스	목 자	6 월 모 임			
변명운	2111	지용한	V	V		
	2112	오재현	V			
	2113	이세광	V		V	
	2114	정극찬	V	V		
이진서	2115	배성우	V	V		
	2116	오현경	V	V		
정봉열	2212	정해순	V	V	V	
	2213	이난정	V			
	2214	성승경	V			
	2215	최석환	V	V		
장형열	2311	심병환	V			

목장	오이코스	목 자	6 월 모 임			
장형열	2312	김혜숙	V			
	2411	김성국	V	V		
	2412	최고성	V			
	2413	김시홍	V	V		
강호태	2421	Shane Williams	V			
	2423	Mike Chung	V			
	2424	Daniel/Sunnie	V			
이근수	시니어	이근수	V	V		
	CG	Rachel Kim	V	V	V	
이정식	FA	Danny / Daniel	V	V	V	
	FX	AJ / BJ	V	V	V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헬로십교회 / 버지니아 캠퍼스
June 29, 2014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에베소서 5:1~10

이원상 목사

주일 예배

장년부	영어 회중 오전 10:00 / 한어 회중 오후 12:00		
유치부 예배	오후 12:00 ~ 12:30	유치부 주일학교	오후 12:30 ~ 1:30
초등부 예배	오후 12:00 ~ 12:45	초등부 주일학교	오후 12:45 ~ 1:30
중고등부 예배	오후 12:00 ~ 12:45	중고등부 주일학교	오후 12:45 ~ 1:30

주중 예배 / 모임

한어 새벽 예배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목요 중보기도	목 오전 10:00	영어 새벽 예배	토 오전 6:00
한어 제자훈련	일 오전 10:00	중고등부 모임	금 오후 7:00
한어 청년부 오이코스	일 오후 1:30		

섬기는 사람들

교역자	곽호식 김우성 김진광 박진용 양경옥 양수연 조진숙 Grace Kim Keeyoung Kim Neil Kim Mark Kosko Brian Lee Sara Pyon David Son
시무 장로	김기영 김일봉 정봉열 한기선 Alex Guo Michael Park Michael Kang Frank Pyon
사역 장로	김덕규 김덕원 장형열 정평희 지용한
파송 선교사	구모세/은혜 박금순 이다윗/안나 이사라/오닐론 오아브라함/순옥 이석문/현숙 장요셉/헬렌 정시나 조규철/옥분 Alex/Pam Im Brian/Jennifer Chang Chong Ho/Kris Won Daniel/Ruth Kim David/Lia Chang James/Denese Forkkio Sung Il/Heidi Jung

MD 캠퍼스
18901 Wa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Tel. 301-444-3100 Fax. 301-444-3115



VA 캠퍼스
1439 Shepard Dr.
Sterling, VA 20164
Tel. 703-444-5634 Fax. 703-444-0567

www.fellowshipusa.com



친구

지난 주간에는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약 한 달 동안 선교보고를 위해 방문하고 머물렀던 선교사님(아프리카 탄자니아)이 선교지로 돌아가시자마자, 런치버그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친구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방문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난 주간에는 제가 속한 한국 침례교의 미주총회가 Dulles Hilton Hotel에서 있었습니다. 그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었기에 또 교회 근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리게 된 행사에 나가 보지도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오후 시간 잠깐 틈을 내서 회의장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전에 한국의 같은 교회에서 함께 섬겼었는데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목사님 내외를 만났습니다. 그 동안 우즈베키스탄과 전쟁 중이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역을 했었고,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강권 하심과 전에 선교지에서 알고 지내던 목사님의 강한 권면으로 지금은 텍사스에서 4년째 목회를 하고 있노라 했습니다. 약 20년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만나지도 소식도 없이 잊고 살았지만 한 두 시간 얘기하다 보니 어제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기쁨과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좋았던지 그 목사님과 함께 총회에 참석했던 같은 주에 계신 목사님이 동석했고 함께 얘기하다 보니 모두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다 모두 함께 친구 하자는 말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말을 트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20년 만에 친구를 사귀게 된 것입니다. 만난 지 하루 만에..ㅎㅎ

총회가 끝나고 그분들은 모두 섬기는 지역과 교회로 돌아갔고, 또 방문했던 목사님 가족도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주를 손님 대접으로 바쁘게 보내면서 '친구'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언제 만나도 즐겁습니다. 편한 존재입니다. 서로 마음이 잘 통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함께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친구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친구 사이의 의리가 목숨을 걸 만큼 진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나이의 유무를 떠나 외롭습니다. 때로는 주변에 그렇게 사랑해주고 사랑 받는 사람이 많음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나를 위로해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외로움을 모릅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제라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먼저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찾아보면 늘 가까이 있지만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그런 시도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가장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나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지금도 내 곁에 항상 함께 하는 친구...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많은 시간을 그분이 나를 짝사랑 하듯 그렇게 쳐다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두웠던 내 영혼에 빛을 주시고, 마음 깊이 숨겨졌던 아픈 상처들을 치유해 주신 왕이요, 구세주요, 위로자인 가장 귀한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이 먼저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우리에게 친구 삼자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 주신다 하십니다. 친구는 친구가 하는 것을 서로 알고 함께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창18:17, 사41:8, 약2:23)이 되어 그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게 되어 소도를 위해 중보 하기도 했습니다.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친구가 되기를 자청하시니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함께 친구 하자고...

**요 15:13~14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설교 노트

주일 봉사자

점심 픽업 / 판매 / 청소	오늘 : 2213 이난정	7/6 : 2411 김성국
유아부 베이비시팅	오늘 : 2311 심병환	7/6 : 2421 Shane Williams
주차 봉사	오늘 : 김창환, 심병환	7/6 : 나흥태, 김종현